

곡성군,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 주력...“현장서 답 찾는다”

우수 농가 순회 맞춤형 기술 컨설팅 생육 단계별 물 관리 등 교육 ‘호응’ 올해 태국 첫 수출 동남아 공략 발판

곡성군이 지역 특화 품목인 블루베리의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우수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 교류를 전격 가동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오곡면 승법리와 오지리 일원에서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소속 농업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순회 현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내 우수 농가 2개소를 방문해 농가별 재배 환경과 생육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수확기 맞춤형 기술 지도를 펼치는 실무 중심 학습으로 꾸러졌다.

먼저 승법리 농가에서는 생육 단계별 관수·관비 관리와 첨단 환경 제어 기술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과실 비대기에 수분 공급을 늘려 굵은 생장을 유도하는 비법부터 시기별 비료 배합 전략, 여름철 하우스 온도 관리 등 1등급 과실 생산을 위한 알짜 노하우가 아낌없이 쏟아졌다. 이어 오지리 농가에서는 점적관수 활용법과 화학분화기(꽃눈 형성기) 양분 관리 요령이 집중적으로 공유되며 고품질 생산의 근간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응애·총채벌레·나방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무리한 전정 대신 나무 수세에 맞춘 숙음전정 기술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우수 농가의 실제 재배 현장을 살피는 교재 삼아 생생한 기술 교류가 이뤄진 덕분에 농가 간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효과가 탁월했다는 평이다. 교육에 참여한 농가들은 실제 성공 사례와 관리 방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현장 적용 비법을 배울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앞서 지난달 ‘2026년 곡성 블루베리 첫 수출 상차식’을 열고 청정 자연환경에서 키워낸 프리미엄 블루베리를 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이며 동남아 진출의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곡성 블루베리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각인시켜 지역 농가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은 향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격적인 현지 판촉을 펼쳐 태국을 넘어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영토를 거침없이 확장할 방침이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수 농가의 훌륭한 재배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산교육”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 농가 소득 증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 선진강 수달생태공원 특별 기획전시인 ‘작은 정글’을 찾은 관람객들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수달생태공원 ‘작은 정글’ 전시 성황

어린이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호응 25일까지 희귀 생물 관찰·숲 체험 등

구례군이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선진강수달생태공원에서 선보인 특별 기획 전시 ‘작은 정글’이 개막 첫날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막을 올린 이번 기획전시는 오는 25일까지 다채로운 체험 행

사로 꾸며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앞서 개막일에는 구례·순천·광양 등 인근 지역 유치원생과 교사 등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작은 정글’은 평소 접하기 힘든 곤충과 파충류 등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기획된 오감만족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시관에서는 절지류·양서류 등을 살펴보고 전문 도슨트의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야외 공간에는 밧줄 놀이터, 숲·캠

핑 체험, 목공 놀이터 등 자연 친화형 시설이 마련돼 신채 활동을 돕는다. 이밖에 군은 이번 행사 기간 2천~3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현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단순 관람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는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했다”며 “남은 기간 많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방문해 특별한 자연 체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농촌지도자담양聯, 고구마 우량종순 식재 활동 전개

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는 21일 “지난 19일 대전면 병풍리 일원 실증시험포(1천100㎡)에서 고구마 우량종순 식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회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우량 종순 식재를 통한 실증시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군연합회 임원과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고구마 종순 심기 작업을 함께했으며, 식재에 앞서 농업인교육팀장이 고구마 작물 특성과 올바른 식재 방법, 고구마 효능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회원들은 실증시험포로 이동해 고구마 종순을 직접 심으며 선도농업 기술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사진> 아울러 현장에는 최원섭 전남도농촌지도자연합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대전면장, 대전농협장 등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방해원 연합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구마를 잘 관리해 수확 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는 우애·봉사·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3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13개회 600여명의 회원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조생양파·마늘 수급 안정 추진

고흥군은 21일 “2026년산 조생양파와 마늘의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생양파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로 산지 거래 가격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군은 출하 조절과 선제적인 시장 격리에 나섰다. 군은 상품성 있는 조생양파 17.9ha 규모를 산지 폐기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고, 유통협약 지원 사업을 통해 저품위양파 400t을 선별해 폐기했다. 이와 함께 군 직영 소평물인 ‘고흥물’과 대형 유통업체, 자매결연도시 등을 통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어 판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마늘은 지난 15일 개장한 녹동·풍양농협 공판장을 중심으로 산지 유통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거래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입점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온라인 판매 다변화를 돕고, 최근 개장한 군로컬푸드 직매장을 안정적인 소비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늘 수확기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출하 조절과 유통 지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군, 학교폭력 예방 ‘부모·자녀 소통공감’ 교육

내달 20일부터 총 4회 진행

장성군이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21일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부모·자녀 소통공감’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을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가정 내 소통에서 찾고, 보호자가 자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는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택진 센터장은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화법을 익힐 때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램이다. 세부 일정은 부모의 마음을 돌보는 1회기 자기 돌봄을 시작으로 2회기 관계 형성, 3회기 가족의 건강한 성교육, 4회기 갈등을 키우지 않는 부모 역할 훈련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꼼꼼히 채워졌다.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교육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2회기 이상 수강한 부모에게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택진 센터장은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화법을 익힐 때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군, ‘BS청춘마켓’ 청년 창업가 추가 모집

29일까지 2명 선발... 상생 모델 구축

보성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내 ‘제2기 BS청춘마켓’ 입점자를 추가 모집한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총 2개 점포(각 34㎡)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18~49세 관내 거주 청년 창업가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입점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약 62만5천원 수준의 사용료를 2년간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주 5일 이상 상시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BS청춘마켓’은 전통시장 유휴 공간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감성을 접목해 활력을

불어넣는 창업 공간이다. 모집의 우선 선발 분야는 디지털·카페류이며, 커피 전문점을 포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유통·숙박업, 사행성 업종, 시장 내 기존 상인들과 중복되는 품목은 신청이 엄격히 제한된다. 입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상품 경쟁력·운영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명을 선발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시키는 든든한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섬박람회 준비위, 거문도·추자도 자매결연

여수 덕촌리-제주 목리 홍보·관광 협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자도 섬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거문도 덕촌리와 제주 추자도 목리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문도와 추자도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지역은 협약에 따라 지역 축제 및 행사 상호 방문, 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교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섬 환경 정화 및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함께 펼치며,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 문화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이번 협약 일정에 맞춰 안도군과 추자도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며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해 힘을 보탤 것이다. 안규철 위원장은 “이번 교류 사업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섬과 섬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 섬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